

IV.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의 구별¹⁾

A. 523 B.C. - 에스라 4장 6절의 아하수에로(스메르디스-가우마타:바르디아 죽인)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에스라 4:6-7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모두 죽으면서 정국은 달라져 있었다. 이 때 이 땅의 백성들이 고레스의 아들인 스메르디스(바르디아의 다른 이름)로 여겨졌던 아하수에로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악한 성읍을 재건하고 그들의 성전을 건설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끝마치면 그들은 공물을 바치거나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메디아 사람 다리오(아스티아게스)와 관련된 장에서 지적했듯,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단지 메디아 왕좌의 칭호에 불과하다. 이것은 키악사레스 1세, 메디아사람 다리오, 그리고 스메르디스(마기인 가우마타가 스메르디스 행세를 함)에게 사용된다.²⁾ 도해 XV를 보라. 이 군주들은 모두 품위있는 메디아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는 분명히 왕위의 칭호이다.

성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서 연대기의 이 시기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자들이 '아하수에로'를 단지 메디아의 왕위 칭호로 인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도해 XVI 관점에 따른 '아하수에로'의 명칭

칭호	왕의 이름	참조	기원전 날짜
아하수에로	키악사레스 1세	토비트 14:15; 다니엘 9:1	615-575
아하수에로	메디아 사람 다리오 (아스티아게스)	에스더 1:2,19, 2:16, 17 외	575-540
아하수에로	스메르디스 (가우마테, 마기사람)	에스라 4:6	523-522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6장 pp135-137 참고

2) 캄비세스 2세와 형제간이다. 진짜 이름은 바르디아였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는 스메르디스라고 되어 있다(3권 241페이지). 비시톤에 있는 다리우스의 비문에는 진짜 스메르디스는 캄비세스에게 암살당했고, 조로아스터교 승려인 가우마타가 스메르디스로 행세하는 데 성공해 BC 522년 왕위를 찬탈했다고 되어 있다.

성서학자들이 에스라 4:6의 '아하수어로'를 에스더서의 '아하수어로'와 동일시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들은 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학자들은 이 '아하수어로'가 페르시아 군주인 크세르크세스일 것이라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서, 성서 본문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맞소라 성서본과 70인역이 에스라 4:6에서 '아하수어로'라고 쓴 곳에 무리하게 삽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자들은 또한 맞소라 성서본에서 '아하수어로'라고 쓰고, 70인역에서는 '아닥사스다'라고 쓰고 있는 동안 에스더서에도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삽입했다. 이는 '아하수어로'와 크세르크세스 사이에 어떠한 언어적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일 때, 꽤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새국제판과 예루살렘의 번역가들은 모두 에스라 4:6을 참조하여 이런 실례를 범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경의 번역가들은 에스라 4:6의 '아하수어로'가 에스더서에서의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들은 에스더서의 '아하수어로'라는 메디아 왕의 칭호를 그대로 보존해 왔다. 새국제판이 에스라 4:6과 에스더 1:1에서 '히브리의 아하수어로, 크세르크세스의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¹⁾

물론 페르시아 군주인 크세르크세스와 아하수어로(에스라 4:6)를 동일시하는 것은 에스라 4장의 6-23절이 어느정도 삽입되어 있으며 후기의 반대 주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이것은 사건의 순서를 다음 아래와 같이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에스라-느헤미야의 전체 틀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존브라이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아하수어로는 크세르크세스와 같다는 해석'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지를 보여준다.

이 몇 년 동안 지역공동체의 지위는 가장 불안정했다. 사마리아에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유다에는 스룹바벨 이후에 여호수아, 그 다음인 요아김, 그리고 다음의 엘리아십과 같은 고위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지방 일을 하는 현지인 총독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느헤미야 12:10, 26). 지방 관리들과의 마찰은 한결같았다. 이들은 둘 다 심한 악평을 서로에게 가했고, 그들의 관리들이 지배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허락했다(느헤미야 5:4, 14f.). 유다에서 그들의 특권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분개하며, 그들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와 분쟁을 일으키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초기에, 아마도 486년 혹은 485년에 이집트에서 반란을 처리하던 크세르크세스가 유대인들을 난동교사로 고발했다고 들었다(에스라 4:6). 우리는 이

혐의들에 대한 근거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몇 년 동안 군사적인 보호나 방어 수단도 없이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습격과 보복, 그리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그들의 무력한 지위를 예민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추측할 수도 있다.²⁾

에스라 4:6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아하수에는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와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사이에 통치했던 왕으로 보인다. 이는 적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혀왔다는 것은 에스라 4:5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라는 진술로부터 알 수 있다.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는 두 명의 통치자,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바르디아)가 있었다. 그 편지는 군주의 통치 초기에 쓰여졌다(비교, 에스라 4:6). 이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왕위에 오르자 적들이 유대인들에 반대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비세스가 바빌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캄비세스가 그 왕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고레스처럼, 캄비세스가 유대인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엘레판티네 파피리로부터 알려져 있다.³⁾ 또한 캄비세스는 메디아 왕의 칭호인 아하수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는 에스라 4:6의 아하수어로 마기사람인 스메르디스를 가리키고 있다.

헤로도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페르시아인인 우리들은 마기사람인 메데가 지배했고, 그는 귀가 없는 사람이다, (*헤로도투스* III.3). 편지에 대해 군주가 보인 반응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라. 아닥사스다는 그렇지 않다(에스라 4:7-23). 마기사람인 스메르디스가 에스라 4:6의 아하수어로라면, 아마도 7인의 대책회의에 의해 그가 타도되었기 때문에 답장을 쓸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B. 521 B.C. - 에스라서 4장 7-23절의 아닥사스다(다리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어로'가 메디아의 왕위 칭호인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위 칭호이다. 페르시아어 Artakhshathra는 'Arta'의 왕국' 혹은 '정의의 왕국'을 뜻한다. 에스라 4:7-23에서, '아닥사스다(아르타:의로운+석세스:통치자)'라는 명칭은 그 구절 내내 사용된다. 페르시아 역사에는 이 왕위의 칭호를 사용한 네 명의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 아래의 도해는 이 요인을 입증한다.

도해 XVII 관점에 따른 '아닥사스다'의 명칭

칭호	왕의 이름	참조	기원전 날짜
아닥사스다	다리오 1세	에스라 4:7-8,11,23	521-519
		6:14	519
		7:1, 7:7, 8:1	514
		느헤미야 2:1	501
		5:14, 13:6	489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464-423
아닥사스다 2세	므네몬		404-358
아닥사스다 3세	오쿠스		358-337

에스라-느헤미야의 작업물이 연대순으로 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에스라 4:7-23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일 것이다. 에스라 4:6에서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으로 불리지 않았던 반면,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불린다는 것에 주목하라.

1) 비교. 그림으로 보는 성경 새국제판 (미시건 그랜드래피즈: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81), pp. 498, 520.

2) John Bright, *이스라엘의 역사*(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59), pp. 360-361.

3) 이 파괴루스는 일부 구성원들이 무역에 종사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엘레판티네에 있었던 유대 식민지는 대부분 용병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파라오 호브라(기원전 595년 - 기원전 570년) 때 이집트에 정착했다. 엘레판티네 식민지는 그들이 Yahu라고도 부르는 야훼계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기원전 526년에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하였을 때 세워져 있던 것이다.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어(기원전 588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집트는 친이집트이자 반바빌로니아였던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안식처로 보였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예레미야 42:18-22)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적인 충고를 거절했고, 예언자 자신조차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직후 수년간 동안은 그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예레미야 44:12. 엘레판티네 파괴리는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하였을 때, 그가 엘레판티네의 유대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리오 1세가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다.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용병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실은 이집트 원주민들을 분개하게 하였다. 이집트의 신인 크눔의 제사장이 기원전 410년 경 엘레판티네의 야훼 성전을 파괴했다고 파괴루스는 밝히고 있다. 기원전 408년에 이집트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기원전 401년 11월 26일자로 기록된 파괴루스 12번은 신전이 재건되었고, '야훼는 성지인 예브에 거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